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아침! 네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네 방을 가득 채워 주었지.

사실 나는 네가 '안녕'하고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랐는데 너는 하지 않더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알아 보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단다.

네가 문을 나설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 보려고 부드러운 미풍으로 네 얼굴에 kiss해 보았고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네 주위로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을 통해 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오후엔 네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를 했지. 거기에서 너의 관심을 끌어 보려고 천둥으로 한 두 번 소리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리고 송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 보았지. 그러면 네가 나를 쳐다 보겠거니 했는데도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네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네게 고운 석양을 보냈고 그 후엔 나의 별들을 통해 네게 수천 번 wink를 보내며 네가 나를 알아보고 한 번 찜이라도 내게 wink해 주기를 바랐단다. 하지만 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더구나.

밤에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난 네 얼굴에 달빛을 비추어 주었고 네가 잠들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와 이야기 하기를 바랐지만 넌 한 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 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 주리라 생각했단다.

이렇게 매일 매일을 난 네가 나를 네 목자로 받아 주길 바라면서 경이롭고 신기한 방법들을 통해 내 자신을 나에게 알리고자 했단다.

네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 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네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네게 나누어 주고 싶단다.

제발 내게 곧 소식 좀 전해다오



◀그뎌 그랬지▶ 가루비누 "하이타이"

가루비누하면 "하이타이" 브랜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이타이 등장후 이사 집들이 선물로 불붙듯이 집안이 번성하라는 성냥과 양초에서 슬그머니 "하이타이"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도 얼핏 기억합니다 "♪ 신난다 모든 빨래 럭키 하이타이. 새로운 합성세제 럭키하이타이...♪".

'다라이'라 불리던 빨간색 향지박에 겨울내 덮던 담요를 넣고 하이타이를 부어 발로 밟으며 빨던 봄맞이 기억! 이제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월 4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더 대충 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달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어들었고,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습니다.

호사스런 결혼식이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루는 이혼도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는데 바빠 하늘 쳐다보기가 어려울 때 입니다.

뉴질랜드의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그 날의 흥분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둥글둥글 나무사이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자봉들을 보며 "참 잘 왔다"

잘 자라줄 아이들, 깨끗한 마음들을 꿈꾸며 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아직 그 공기, 그 색깔이 푸르데 변한건 우리 마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감사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오늘 누리는 복을 복으로 생각할 때까지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여보! 사랑해요
(보여! 요해랑사)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은
갈수록 더 멋 있어져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7 (신년예배)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7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9:20-2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바보같은 교회"(2)-가정에서-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05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정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4	이규임	김인원	우리는...	이지형.장현중
11	이재영	김인희	남여선교회장	전병주.정관영
18	장현중	김종우	학생부교사	정성호.정종일
25	정덕수	김종원	김창식.민광자	조용건.최득수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창6:)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잔 돌 돌아 흐르다 초록 앞사귀 하나 품어 푸른 빛으로 흘러가는 물 같은 새해, 5일장 거두고 돌아오던 시원한 여름 밤 바람 길에 내일 꿈꾸던 장돌뱅이 같은 새해 새로 씌운 방석위에 고풍고독한 마음으로 앉아 기도하던 산골 예배당 종탑같은 거룩한 새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특별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교우소식
<한국방문후 귀국> 이재영 집사(31일)
- 수요일예배탐방주간 : 7, 14, 21일 수요일
*3주 수요일예배는 이웃의 교회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탐방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신앙을 이웃 교회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여 신선한 신앙을 더 신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04년 자원봉사
*여러 교우께서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시된 곳에 자원봉사가 더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지원서(안내석)를 이용하여 자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4년 1월 첫 구역예배(예고): 구역식구 "상견례" <일시> 18일(주일) 예배 후.
*셋째주일(18일)에 구역별 BBQ를 가지면서 잘해보자는 'Fighting'과 함께 "상견례"를 갖겠습니다. <구역준비물> BBQ 불판1개 (고기와 Salad는 교회에서 준비)
- 2004년도 서리집사 및 봉사담당. 구역편성(안내문참고)
*함께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4일	신년주일	수요일탐방주간(7-21)
11일		믿음의어머니(12)
18일	구역교우주일	
25일	이삭줍기주일	당회(26) 수요일예배시작(28)

◀착한 시인들▶ "설날 아침에"中에서
-김종길-

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난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도꾸리 새옷 하나 얻어 입고 좋아하던
소년들의 새해, 어느새 작년 설빔이 쌍
둥 짧아져 손목 위로 올라온 소녀들의
새해, 그래도 행복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서가 아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떡거리가 있어서도 아니였다. 그냥 좋
은 새해 설날이였다. 좋은데 이유가 있
다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모독이였다.
그냥 좋아지지 않는 중년의 새해, 한없
이 때물은 마음탓이라.